

드디어 아기가 태어났다.

아내: 아 귀여워 우리 아가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귀엽지.

남편: 당연히 나지

아내: 뭐라고? (정색을 하며, 차가운 목소리로)

남편: 아니 우리 공주님 닮았다고. 하하하 (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)

아내: 그렇지 나 닮았지. 나 안 닮았으면 안 귀엽지.

남편: 아난데. (작은 목소리로 말하지만, 다 들릴 정도로 말한다.)

아내: 뭐라고? (정색을 하며, 차가운 목소리로)

남편: 아니, 나 안 닮았다고

아내: 그렇지^^

남편: 아 하하

아내: 하하

이때까진 좋았다. 좋았다 정도가 아니라 천국이였다. 지금에 비하면...

몇 개월 후

음악 소리 (아기 우는 소리)

남편: 아 쯔! 잠 좀 자자!! 잠 좀 (여기서부터 모든 대사를 화난 목소리로)

음악 소리 (아기 우는 소리) (아까보다 더 커야함)

아내:아 진짜! 자기 때문에 영지 울잖아. 빨리 재워

남편: 왜 나 때문이야, 그리고 저번에 내가 재웠잖아. 그니까 지금은 네가 재워

아내: 싫어, 그리고 지금은 자기 때문에 울잖아

남편: 아니, 하 그래 그래 내가 한다 내가 해

아내: 그럼 부탁할게. (새침한 목소리로)

남편이 아기를 재우고, 잠을 자리 방으로 갔다.

음악 소리 (아기 우는 소리)

남편, 아내: 아이아 진짜

결국 둘 다 밤을 새웠다.

남편: 회사 다녀올게

아내: 어! 어.

고통 같은 평일이 지나고

남편: 드디어 주말이다. 야호!

음악 소리 (아기 우는 소리)

남편: 아아아아아

아내: 아아아아아

그렇게 아기 우는 소리와 함께 저녁이 됐고

새벽 3시가 됐을 때였다

음악 소리 (아기 우는 소리) (여기서부터 모든 대사를 화난 목소리로)

남편: 아 진짜. 니가 봐

아내: 싫어, 자기가 봐

남편: 저번에 내가 재웠잖아

아내: 아 어쩔라고, 그냥 자기가 재워

남편: 와 진짜. 또 나보고 재우라고?! 내가 왜

아내: 그냥 좀 재워 주면 안 돼.

남편: 어 안돼

아내: 진짜 쪼잔하다. 쪼잔해

남편: 뭐라고, 쪼잔 이게 진짜 C

음악 소리 (아기 우는 소리)

남편: 아 진짜

결국 남편이 아기를 재우는 것과 함께 다음 날이 되었다.

아내: 어어 안돼 안돼 착하지~내려놔

(아이가 아내 핸드폰을 어항에 빠트릴려고 하고 있었다

아내: 우리 아가 착하지~ 폰 내려놔(퐁덩~)

핸드폰이 어항에 빠졌다.

아내: 아 진짜

그렇게 우리의 고통 같은 아이 육아가 끝났고, 더 큰 고통인 사춘기 육아가 시작되었다.